

르네상스 시기의 유토피아 문학에 나타난 도시·건축에 관한 연구

이 일 형*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제어 : 르네상스시기 대표적인 3개의 유토피아 문학, 유토피아의 도시·건축적 특성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사회가 동요하고 변혁이 심해서 어려움과 문제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면, 인간은 그것으로부터의 도피를 꿈꾸게 된다. 그래서 중세의 억압된 사회질서에서 근세의 새로운 사회질서로 옮겨가는 재편성의 시기였던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고대와 계몽주의시기에는 유토피아(utopia) 사상이, 또한 인간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정신적인 혼란이 가중되었던 지난 세기에는 디스토피아(dystopia)의 사상이 확대되었다.

불안과 위기의 시대인 21세기에도 이러한 사상의 출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본 연구는 극심한 사회적·문화적 격변을 통하여 그 당시의 문명이 지나게 된 비판적인 세계관과 미래관의 결과로서 나타났던 유토피아에 대해 그것이 본격적으로 묘사된 르네상스시기의 문학을 중심으로 그것의 도시·건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저술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차례 번역되는 과정에서 생긴 오역(誤譯)과 도시·건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발생한 오류(誤謬)를 정정하고, 스케일에 맞게 처음으로 도면화(圖面化)하고 그 특성을 밝혀내어 이후의 연구에도 도움을 주고자 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제껏 유토피아에 대한 철학·문학·사회학적인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방대함과 복잡함 때문에 유토피아의 도시·건축 자체에 대한 연구는 한계가 있어왔다. 특히 그것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르네상스시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구체적인 자료의 한계 때문에, 도시·건축보다는 유토피아의 이념·사회에 대한 사상적인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르네상스시기의 대표적인 3대 유토피아 소설로 평가받고 있는 모어(T. More), 캄파넬라(T. Campanella), 베이컨(F. Bacon) 등의 문학작품¹⁾ 속에서 유토피아라는

1) 르네상스시기 3대 유토피아 소설인 모어의 <유토피아, 1516>, 캄파넬라의 <태양의도시, 1602> 그리고 베이컨의 <뉴아틀란티스, 1624>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 교신저자, 이메일: yhlee@sch.ac.kr

가상(假想)적 공간에 묘사되고 있는 도시·건축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전의 연구와는 달리 여러 국내외 관련서적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는 오역과 오류를 원문(原文)과 상세하게 비교하여 정확성을 기하고자 했다.²⁾ 그리고 원문

있다. ①집필시기; 폭넓게 14~17세기까지를 르네상스시기로 볼 때, <유토피아>는 중세의 영향이 어느 정도 존재했던 시기에, <뉴아틀란티스>는 르네상스를 벗어나고 있던 시기에 쓰여졌다. ②개인상황; <유토피아>는 모어가 大法官의 지위에 오르기 전에, <뉴아틀란티스>는 베이컨이 대법관직을 내놓고 교외에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태양의도시>는 캄파넬라가 나폴리 監獄에서 수감 중에 집필했다. ③이념성향; 최초로 共產主義적 사회체제를 암시했던 <유토피아>나 통제가 심한 全體主義적 사회체제를 묘사한 <태양의도시>에 비해, <뉴아틀란티스>는 상대적으로 多多益善의 쾌락적 사회를 묘사하고 있다. ④종교관; 독실한 信者였던 모어의 <유토피아>와 聖職者였던 캄파넬라의 <태양의도시>는 당시 교회와 성직자가 일종의 社會惡으로 비판받던 시기여서 종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에서, <뉴아틀란티스>는 당시 유럽인들의 基督教 中心의 人間觀에 따라 긍정적 시각에서 쓰여졌다. ⑤과학지식; <태양의도시>에서는 박식한 캄파넬라의 다양한 지식이 언급되고 있고, <뉴아틀란티스>에서는 이보다 진보된 미래에 실현될 과학적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서 퍼려지고 있으나, <유토피아>에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특히 異國의인 中國 등에 대한 언급에서 캄파넬라는 일부만 假想적으로 설명한 반면, 베이컨은 비교적 상세하고 정확하게 많이 기술한 것으로 보아 地理상의 발견에 따라 外國에 대한 정보가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⑥건축지식; 모두가 도시·건축에 대한 非專門家였으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건축적 묘사가 부족하지만, <유토피아>가 상대적으로 많고 <뉴아틀란티스>는 빈약하다.

2) 여기에서 본 논문은 모어의 <유토피아> 라틴어 原典에 대한 翻譯本들의 차이, 특히 도시·건축부분에 대한 相異한 번역에서 나타난 적지 않은 차이와 오류를 비교해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했다. 참조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英譯本은 <Thomas More, Translated by Edward Surtz, *Utopia-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4> <Thomas More,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Paul Turner, *Utopia*, Penguin Books, 2003>을, 日譯本은 <トマス モア, 平井正徳 譯, ユートピア, 岩波書店, 1994>을, 한글본은 <Thomas More, 노재봉 역, *Utopia*, 삼성출판사, 1982> <Thomas More, 양병탁 역, *유토피아*, 범조사, 1983> <Thomas More, 최종묵 역, *유토피아*, 민성사, 1994> <Thomas More, 원창엽 역, *유토피아*, 홍신문화사, 1995> 등이다.

또한 Wikipedia의 英語原文 자료를 근거로 <태양의도시>는 <Tommaso Campanella, 임명방 역, *La Città del Sole*, 삼성출판사, 1982>를, <뉴아틀란티스>는 <Francis

을 토대로 처음으로 그것의 도시·건축을 스케일과 치수에 맞춰 CAD와 Photoshop으로 도면화하고, 비교·분석하여 구체적으로 그 특성을 밝혀보고자 했다.

2. 르네상스시기의 유토피아 문학

2-1. 르네상스시기의 문학

르네상스는 중세이후 근세 유럽문화 태동의 기반이 되었는데, 그 범위는 철학·문학·미술·건축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르네상스는 권위주의적인 교회가 지배하는 중세의 종교절대주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자유로운 세상으로 접근해 간, 근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이고 변혁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보다 개성적이었으며, 개인적인 성취에 관심이 있었다. 또한 르네상스에는 세속화의 경향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사후(死後)의 세계가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의 현세였기에 현실주의자의 태도를 견지했으며, 정치·과학·예술의 지상(至上)주의를 지향했다.

그리고 15세기에 잇달아 일어난 지리상의 발견도 르네상스적 현실 인식의 연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학문의 대두가 사유의 지평을 넓혀놓았다면 지리상의 발견은 공간의 지평을 확장시켜놓았다. 따라서 르네상스시기의 예술·문학 분야는 현세 중심의 사고와 미의 추구를 들 수 있는데, 내세적인 것보다 쾌락적인 생활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이 시기의 문학은 중세를 통하여 동로마제국과 접촉을 가졌던 이탈리아에서 일어나 전 유럽에 파급되었다.³⁾

이탈리아 르네상스시기 최초의 작가로 간주되는 단테(Dante Alighieri)의 <신곡, 1321>과

Bacon, 김종갑 역, *The New Atlantis*, 에코리브르, 2002>를 비교하여 정확성을 기하고자 노력했다.

3) 임명방,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미술』, 문학과학사, 2003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의 <서정시집, 1330년대>,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의 <데카메론, 1353> 등은 중세 신분제 사회와 신(神)중심의 세계관을 깨트리고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구축했는데, 이들은 문학작품들을 라틴어 대신 자국어인 이탈리아어로 쓰기 시작하여 민족적 언어의 회복과 문화적 정서를 배양시키고자 했다.

또한 르네상스가 영국에 영향을 준 것은 16세기에 들어서였다. 대표적인 인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와 개인적으로 두터운 친분을 쌓은 모어는 영국의 뛰어난 1세대 르네상스 작가라 할 수 있다. 영국의 르네상스는 스펜서(Edmund Spenser)의 <선녀왕(仙女王)>과 같은 대서사시와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극작품, 베이컨의 저서들과 더불어 그 정점에 달했다.

르네상스시기 대부분의 문학이 그랬듯이 모어의 <유토피아, 1516>, 캄파넬라의 <태양의 도시, 1602> 그리고 베이컨의 <뉴아틀란티스, 1624>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즉, 르네상스 정신 그리고 지리상의 발견과 과학적 발전이 배경이 되었다. 그들이 작품을 집필하던 시기에는 사회제도나 정치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각주1의 ②참조), 작품에 구상된 이상적 사회를 모델로 삼아 사회가 변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참여와 개혁의 일환으로 이상향(理想郷)을 문학작품 속에 묘사했다고 볼 수 있다.

르네상스시기의 유토피아는 고전적 유토피아에서 근대적 유토피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모어의 금욕(禁慾)적 유토피아에서 점차 베이컨의 욕구충족(慾求充足)적 유토피아로의 변화를 보여주며, 개인의 완성에서 사회적 조건과 제도개혁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 같은 과도기적 성격은 크게

종교적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을 조화시키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2-2. 르네상스시기의 유토피아 문학에 묘사된 도시·건축

(1) 모어의 <유토피아>

① <유토피아>의 배경과 사상

모어(Thomas More)의 <Utopia, 1516>⁴⁾는 출판된 이후 지금까지 모든 유토피아 사상의 원형으로서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책이다. 모어는 이 책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취향(다소 비현실적인 ‘庭園가꾸기’에 대한 언급 등)은 물론, 직·간접으로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포함시키고 있다.⁵⁾

그리고 <유토피아>는 15세기말부터 16세기까지의 르네상스 전성기에 해당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시대는 절대군주제의 부흥기, 왕조주의적 국제정치, 가톨릭교회의 약화, 휴머니즘의 승리, 스킴라 철학에 대한 그리스 고전의 강조 등으로 특징지어 진다.

플라톤은 그의 <국가, BC4세기>에서 이론적이고 범주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모어는 실제로 있는 것과 같은 이상국(理想國)

4) ‘유토피아’라는 말은 원래 그 당시 英國의 다양한 특징을 반영해서 Thomas More가 저술한 ‘架空의 나라’에 대한 책의 제목에서 비롯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무 데도 존재하지 않는 理想國 또는 理想郷을 가리키는 말이다. 語源은 그리스어의 ou(no)+topos(place)라는 두 말을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서 ‘存在하지 않는 場所’를 의미하는데, 또한 eu(good)+topos(place)로서 ‘最上の 場所’라는 뜻을 연상케 하는 이중기능을 가지고 있다.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1995, pp.275~314
Thomas More, 노재봉 역, 『Utopia』, 삼성출판사, 1982

5) 그 당시 유럽의 대부분은 宗教改革에서 야기된 정치 문제로 시끄러웠다. 그러나 각 宗派의 정치적 야심은 실제로 그 당시에 발생한 近代 經濟體制가 파생시키고 있던 중대한 경제문제와 그 의미를 은폐시키고 있었다. 모어는 羊毛가격의 등귀에 따른 ‘Enclosure 運動’과 같은 역사적 사실의 문제를 들고 나와 근대경제에서 치열한 獲得經濟의 양상을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을 극적인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형식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토피아>에 나타나 있는 쾌락(快樂)주의와 공산(共産)주의이다. 쾌락은 유토피아의 국가 목적이다. 유토피아의 공산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이에 대한 정당화에는 원시 기독교와 플라톤이 동원되고 있다.⁶⁾

② <유토피아>에 나오는 섬과 도시



<그림 1> 유토피아 섬 (원저의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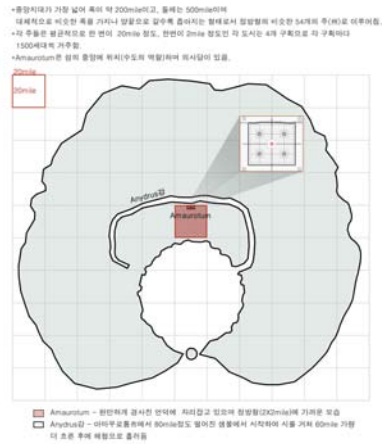
<그림 2> 유토피아의 상상도

유토피아 사람들이 사는 섬은 그 중앙지대가 가장 넓어서 폭이 약 200mile(321.8km)⁷⁾ 가량 되는데, 다른 지대도 대체로 비슷하나 두 끝으로 가면서 뾰족하게 가늘어지기 시작한다. 이 두 끝은 둘레 500mile의 원을 만들어 섬이 초생달⁸⁾처럼 보인다. 그 양단은 약 11mile 너

6) 플라톤이 夫人 및 子女들의 共有, 직업적인 軍人, 貴族主義를 주장한 데 대하여, 모어는 家族의 紐帶, 民兵, 代議의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어는 衣食住 등의 공유제도를 말하면서도, 종교적인 유대를 강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物質的인 共產主義는 정신적인 유대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모든 유토피아가 그러하듯 조화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여행 규제라든지 변화를 제지하여 共產主義 또는 全體主義的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7) 이것은 <Saint Albans Chronicle, London, 1515, sig.A2>에 의한 英國의 폭이다. D. Erasmus에 의하면 유토피아에서 모어는 주로 英國을 표상했다고 한다.

8) 터키 國旗의 초생달과 비슷한데, 그 안의 별은 항구 입구에 있는 바위로 생각하면 된다. 모어가 상상한 이 섬은 플라톤이 상상한 理想國인 아틀란티스와 유사하다. Thomas More, 원창엽 역, 『유토피아』, 홍신문화사, 1995, p.79



<그림 3> 유토피아 섬의 모습과 아마우로툼의 위치에 대한 작성 도면

비의 해협에 의해 갈라져 있고, 해협은 안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다. 해협은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호수와 같고 물결도 잠잠하여 나라의 중심지대를 거의 하나의 항구로 만들고 있다.

이 섬에는 언어·전통·습관·법률 등이 같고, 또 모두가 널찍하고 장엄한 모습을 지닌 54개의 주(州)가 있다.⁹⁾ 이 주들은 모두 그 설계가 비슷하고, 지형에 따라 좀 다른 것을 빼고는 외관에 있어서도 엇비슷하다.

그리고 한 주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다른 주와의 거리가 24mile(38.6km) 이상 되는 경우는 없고,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해도 걸어서 하루 만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먼 주는 하나도 없다. 각 도시는 연로(年老)하고 경험 많은 시민 세 사람을 뽑아 아마우로툼(Amaurotum)¹⁰⁾

9) William Harrison의 <Description of England, 1577>에 의하면, 英國에 있는 53개의 州에 런던市를 첨가하여 54개가 된다. 또한 英譯本에서는 'Big town'으로 표기되었는데, 연구자의 견해로는 한 개의 都市(州都)를 포함한 州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다고 본다.

Thomas More, 양병탁 역, 『유토피아』, 범조사, 1983, p.73
Thomas More, Translated by Paul Turner, *Utopia*, Penguin Books, 2003, p.50

에서의 연례회의를 통해, 이 섬 전체에 대한 공동 관심사를 토의케 한다. 이 시(市)는 나라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든 시의 대표들이 모이기 쉬워 수도(首都)로서 취급된다.

각 주에 대한 국토의 배분은 꼭 잘되어 있어서 어느 주든지 적어도 사방 20mile의 폭으로 되어있고, 주간의 최장 거리를 이루는 쪽은 더 길게 되어있다. 어떤 주도 그 구역을 확장할 의욕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들은 모두 스스로를 그 토지의 주인이 아니라 차지인(借地人)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방형 형태의 각 도시는 균등하게 4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각 구역의 중심에는 자유롭게 필요한 것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상품들을 갖춘 시장(市場)이 있다. 이외에 식료품시장도 있으며, 주거지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30세대가 있는데 집회와 공동식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용도의 회관(hall)도 있다.

기하학적 형태와 규칙성의 확립에 주목하여, 모든 도시와 마을, 계층에 동일한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도시는 4개 구역 마다 1,500세대 총 6천 세대 이상은 수용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인구가 늘어나면 강제로 이주하게 한다.¹¹⁾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도시 성곽(城郭)밖의 가까운 교외에 4개의 널찍한 공공병원이 있어 환자들은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13개의 교회¹²⁾가 한 도시에 있는데, 교회건물 내

10) Amaurotum(英譯本에서는 Aircastle)은 ‘몽롱한 市’라는 뜻으로 안개가 많은 London을 풍자했다. 그리스어 아마우로스(어둠 컴컴한)에서의 造語이다. Thomas More, 양병탁 역, 전게서, p.74
Thomas More, 최종록 역, 『유토피아』, 민성사, 1994, p.61

11) 18세기에 Charles Fourier가 제안했던 1600~1800명의 주민을 위한 <共産村(Phalanstery)>이나, 20세기 중반 Le Corbusier의 1600명을 위한 <Unite d' Habitation>에서 수용인원의 제한에 대한 근거는 모두 T.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양호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제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어둡침침하지만 외부는 화려하고 커서 웅장한 모습이다.

농촌에는 도처에 서로 적당한 간격을 두고 농기구들이 잘 갖춰져 있는 농가들이 있다. 이런 농가에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2년마다 교대로 번갈아 와서 산다. 한 농가의 인원은 남녀 합해서 적어도 40명이며, 그 외에 농토에 고정적으로 팔려 있는 노예가 2명 있다. 이들은 성실하고 나이 든 한 부부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30호의 농가를 한 단위로 하여 그것을 필라르크(家族長)¹³⁾가 다스린다.

③ <유토피아>에서의 아마우로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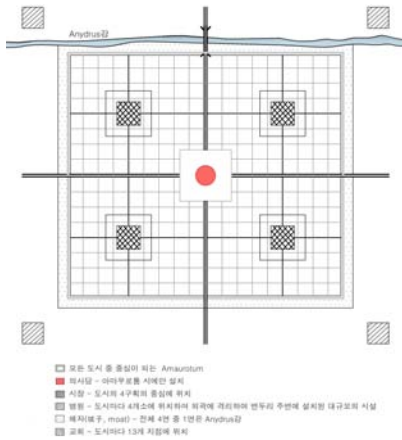
이 도시의 전체적인 설계는 처음부터 이 도시의 설립자인 유토피스(Utopus)¹⁴⁾자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곳 도시들은 지형이 다른 경우가 아니면 모두 똑같은데, 수도 아마우로툼은 완만하게 경사진 언덕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그 모습(ground plan)은 거의 정방형(2×2mile)에 가깝다. 80mile 떨어진 언덕꼭대기의 샘물에서 시작된 아니드루스(Anydrus)강(江)¹⁵⁾은 아마우로툼을 지나 다시 60mile을

12) 각 도시마다 13개의 敎會와 13명의 聖職者라 함은 예수와 12제자에서 나온 숫자의 합인 13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英譯本에서 Church라 표기되어 교회라 번역했지만 <유토피아>에서는 종교적 자유가 보장됐다고 묘사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宗敎施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토피아>에서 성직자는 지위와 명예를 겸비한 영예로운 존재로서 묘사되고 있으나, 성직자들의 권력 참여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것은 T.모어가 실제로 겪었던 헨리8세 치하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Thomas Wolsey 추기경을 비롯한 성직자들과 교회들의 세속화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13) Phylarch(英譯本에서는 District Controller)는 한 종족의 首長이라는 뜻이다. Phylarchus는 Phule(種族)와 Archos(우두머리, 지배자)의 복합어로 ‘家(部; 種)族長’의 뜻인데, ‘지방관리’ 정도의 직위이다. Thomas More, 원창엽 역, 전게서, p.82

14) Utopus는 無所라는 뜻에서 ‘無所에 대한 統治’란 의미다. 유토피아와 마찬가지로 造語이다. Thomas More, 양병탁 역, 전게서, p.73

15) Anydrus(英譯本에서는 Nowater)는 부정용을 나타내 건축역사연구 제19권 6호 통권73호 2010년 12월



<그림 4> 아마우로툼의 주요시설 배치에 대한 작성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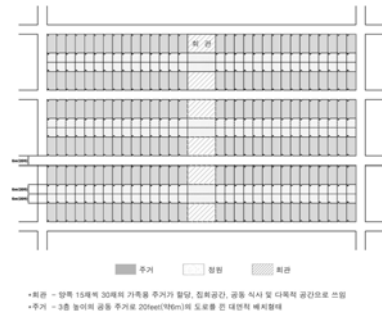
흐른 후 해협에 이르는데, 강둑에 접해있는 도시의 길이는 폭보다는 약간 길다.

요새(要塞)화된 도시형상을 띠는 아마우로툼은 망루(望樓)나 보루(堡壘)가 촘촘히 세워진 높고 두터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성벽의 3면은 해자(垓字: 濠)가 둘러싸고 있는데, 물은 없지만 깊고 넓을 뿐 아니라 가시덤불이 막고 있어 건너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나머지 1면에는 강이 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강의 건너편(강폭은 50yard, 약46m)과는 아치형으로 된 장엄한 석조물(石造物)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시가(市街)는 교통과 방풍(防風)에 알맞도록 잘 설계되어 있다. 테라스 형태를 띤 건물들은 웅장하며, 거리 전체에 걸쳐 길게 연이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주택들의 전면은 20feet(6m) 너비의 도로(마차길)로 나누어져 있고, 후면에는 도로 너비만큼 길고 넓은 정원이 있으며,

는 접두어 a와 hudor(물)의 복합어로 ‘물 없는 江’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Thames江을 지칭한 것 같다. 또한 아치형으로 된 장엄한 石造物 다리는 London Bridge를 의미한다.

Thomas More, 노제봉 역, 전계서, p.67



<그림 5> 아마우로툼의 주거지역 배치에 대한 작성 도면

다른 도로의 배면(背面) 건물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각 주택에는 모두 쉽게 열리고 스스로 닫히는 자재문(double swing-door)이 있는데, 누구나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로 향한 정문과 뜰로 향한 뒷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유재산이란 건 없다. 각 자에게 할당된 주택들은 10년마다 서로 바꾼다.

모든 가옥들은 3층인데, 외벽은 단단한 돌이나 거칠게 마감된 벽돌로 되어있다. 경사지붕은 비용이 안 드는 특별한 종류의 콘크리트로 덮여져 있다. 이것은 불에 강하며 폭풍우에 의한 파손을 피하는데 있어서도 납(鉛)보다 훨씬 낫다. 창(窓)에는 유리를 끼거나(이것은 유토피아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다), 때로는 깨끗한 기름이나 호박유(琥珀油)를 바른 좋은 린넨 천을 쳐서 바람을 막는데, 이것은 햇빛은 잘 통하지만 바람은 통하지 않는다.

(2) 캄파넬라의 <태양의도시>

① <태양의도시>의 배경과 사상

캄파넬라(Tommaso Campanella)의 <La citta del sole, 1602>은 인간생활의 이상적 형태를 논하는 공상적(空想的) 사회사상으로서의 유토피아론 이다. 그의 <태양의도시>에서 모색했던 구상은 플라톤·모어의 영향을 받았지만, 가까운 미래16)에 실현 가능하다는 신념하

에 현실적인 입장에서 저술되었다.

모든 인간 죄악의 근원인 개인주의와 자아(自我)의식을 부정하는 <태양의도시>의 사회 생활은 여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공유제로 하고 있다. 이 사상에는 플라톤의 영향이 강하게 미쳤고, 원시 기독교의 생활을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태양의도시>가 일반농민의 사회적 해방이란 오래된 꿈을 위한 당시 이탈리아인들의 절실한 소원의 마스터플랜이라 하더라도, 빈곤 원인의 하나인 다산(多産)을 제한해보려고 남녀의 성(性)관계마저 통제하려는 것은 오웰(George Orwell)의 <1984년, 1949>에서와 같이 전체주의적인 체제에 대한 우려가 보인다.

모어보다 약 1세기 후에 나타난 캄파넬라의 <태양의도시>에서 최고 통치자인 형이상학자(形而上學者)는 다름 아닌 교황(敎皇)이며, 그는 그리스도의 정이가 구현될 수 있는 신정(神政)정치를 꿈꾸었기에 무신론적 공산주의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태양의도시>에는 한 사람의 신관군주(神官君主)가 있고 그를 ‘태양’¹⁷⁾이라 부르는데, 제사와 정치를 다 같이 지배하며 그 아래 3인의 고관(高官)¹⁸⁾이 각기 권력·지식·사랑을 담

16) <太陽의都市>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되었듯이, 占星術에서 숙명적이라고 생각된 900과 700이란 수에 3이란 완전한 숫자가 보태어진 1603년과 예수의 탄생일인 12월 24일 수요일에 일어나리라고 판단되었던 天體의 大合朔이, 지구에 大革命 내지 인류재건의 계기를 마련해 줄 大變革을 가져오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太陽의都市>는 바로 이 變革에 대비하는 현실적 처방이었다. Tommaso Campanella, 임명방 역, 『La Città del Sole』, 삼성출판사, 1982, pp.193~194

17) 캄파넬라의 原文에 ‘太陽’은 文字로 표시되지 않고 상징적으로 圓속에 點을 친 ‘◎’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들의 말로는 形而上學者를 뜻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18) 그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3인의 보좌역 高官은 ‘太陽’에 소속된 조직을 말하며, 이것은 가톨릭의 三位一體說에서 유래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장기집권이나 세습제도가 아니며, 그들보다 훌륭한 인물이 나왔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그 자리를 이양(移讓)한다고 되어있다.

의학·동식물학·천문학에 대한 광범위한 언급, 새로운 무기나 승용물(乘用物)에 관한 캄파넬라의 독창적 발상은 학자로서의 그의 박식(博識)을 나타내고 있으며, 르네상스 이후 계속 새로운 것이 발명되고 창작되었던 당시 유럽인의 자신과 활력을 엿볼 수 있게 한다.¹⁹⁾ 또한 그들의 상업 활동이란 별다른 것이 없고 <유토피아>와 달리 화폐(貨幣)가치는 인정되지 않지만, 화폐 없이 필요로 하는 물품(物品)과 교환하는 방식을 취한다.

② <태양의도시>에 묘사된 도시·건축

제노바인이 세계 일주를 하던 중 타프로바나 섬²⁰⁾에 도착하여 나중엔 적도직하(赤道直下)의 대평원(大平原)에 도달하게 되는데, 거기서 ‘태양의도시’²¹⁾로 향하게 되면서 그곳에

다. 여기서 ‘권력(풍)’은 軍事, ‘지식(시루)’은 學問, ‘사랑(모루)’은 生殖과 教育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19) “航海術은 대단히 발달되어 배가 많고, 바람도 노도 없이 달리는 배도 있다.”고 책에 묘사되어 있는데, 마치 Jules Verne의 <해저 2만마일, 1870>에서와 같은 표현이다. 그리고 “농업은 가장 귀중하게 여겨지는 일 중의 하나로 놓고 있는 땅이란 없으며, 전 지면이 農具로 무장하여 쟁가리를 치고 밭갈이를 하며, 씨 뿌리고, 밭을 갈고, 수확을 올리는데 모두가 참여하므로 빠르게 일을 해치우곤 한다.”는데, 마치 20세기의 共產主義와도 같은 모습이다.

20) Taprobana란 地名은 지금의 실론(Ceylon 現在는 Sri Lanka)섬을 의미하는 Tamraparni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대 그리스 地理學者 트로메오의 글에도 나와 있다. 그러나 Ludovico de Warthema의 여행기엔 <태양의도시>와 흡사한 “異教徒 4인의 왕이 다스리는 수마트라”란 구절이 있어, 현재로서는 수마트라로 추측된다. 또한 이 섬의 이름은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는 실론 섬을 뜻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1) <La Citta del Sole>가 원명인데, Citta란 都市라고 번역될 수 있으나, 이탈리아에서는 피렌체·피사와 같은 封建體制下에 地方自治都市를 뜻하는 것이어서 나라 또는 마을이라는 개념에 더욱 가깝다. 또한 Bernardino Telesio가 “물질의 에너지 원천은 熱이다”라고 말한 것

대한 설명이 시작된다.

‘태양의도시’는 넓은 평야로 되어있으며, 그 가운데 언덕이 우뚝 솟아올라 있다. 마을의 대부분은 그 언덕 위에 세워져 있고, 마을을 둘러싼 여러 겹의 성벽은 언덕 멀리까지 뻗어 있다. 그의 이상도시는 이전의 것들과는 달리



<그림 6> 태양의도시 책의 삽화와 상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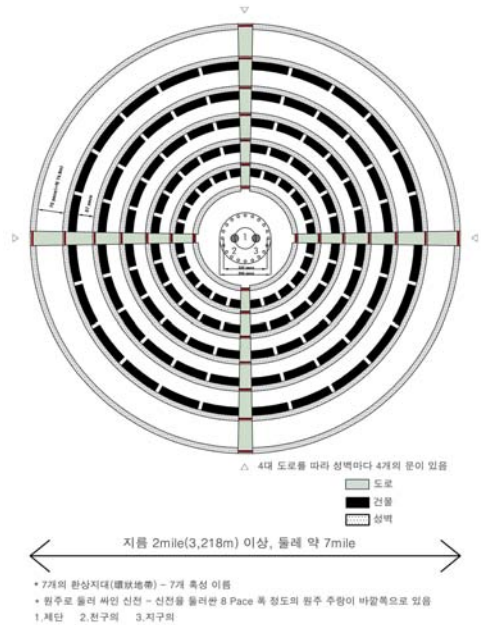
출처: <http://www2.lingue.unibo.it/utopia/universutopia/>

해박한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기술되었으나, 일반인의 생활상에 대한 기술은 모어의 <유토피아>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전체주의적인 규율이 강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각각 7개의 행성(行星) 이름이 붙여있는 7개의 환상(環狀)지대로 구성된 언덕위에 세워진 ‘태양의도시’는 폭이 2mile(약 3.2km)이상이며 둘레는 7mile 정도이고, 언덕의 사면(斜面)에 건물이 세워져있다. 동서남북으로 뚫린 4개의 간선도로가 있으며, 도로를 따라 이중으로 된 4개의 성문(城門)이 7겹의 원형으로 된 성벽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²²⁾ 철판(鐵板)으로

에서, 그리고 舊約聖書 <이사야書>의 ‘태양의마을’이라든지, 푸리니우스의 博物誌에 不死鳥가 살고 있는 아라비아의 ‘태양마을’이란 언급이 있는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 東西南北으로 뚫린 4大道路란 太陽의 行路를 나타내는 로마시대의 Cardo(北→南)와 Decumanus(東→西)에서, 7겹의 城壁이란 Dante의 <神曲> 중 ‘地獄’편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平原 속에 언덕과 그를 둘러싼 여러 겹의 城壁이란 개념은 그 당시 흔히 알려진 것이었다. 그리고 도시의 형태로 도입한 圓形은 로마의 Caput mundi나 그리스 Delphi에 있는 Omphalos stone 처럼 世界의 中心이라는 개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 태양의도시 주요시설 배치에 대한 작성 도면

뚫힌 성벽문은 교묘한 방법으로 상하(上下)로 여닫도록 꾸며져 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성벽과 그 다음 안쪽의 제1성벽 사이엔 약 70보²³⁾(약 74.8m)정도의 평지(平地)가 있다.²⁴⁾

건물(palace)은 중심을 향해 제1성벽에서부터 제5성벽까지 세워졌는데, 이 건물들은 성벽

C,N. Schulz, 정영수·윤재희 역, 『서양건축의 본질적 의미』, 세진사, 1991, pp.72~94

23) 東洋에서 歩란 길이단위는 대개 6尺으로 1.82m를 뜻한다. 그러나 英譯本을 참조해보면 여기서의 보(pace)는 1.609m를 뜻하므로 70pace는 74.83m이다. <http://www.wikipedia.org/>

24) 제1성벽과 제2성벽 사이에는 조금 작게 67步(pace) 폭의 平地가 있다. 제2성벽에는 위아래로 장식된 거닐 수 있는 回廊이 내부에 있고, 건물내부를 둘러싸는 벽이 있다. 또한 하부의 기둥으로 지지되는 列柱廊이 있고, 그 위로는 훌륭한 壁畫와 상부의 住居에 이르는 통로도 있다. 그리고 성벽마다 두 겹의 城門을 통과해서 경사가 완만하여 올라간다는 것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계단을 통해 계속 올라가면 언덕의 맨 꼭대기에 다다를 수 있다. 그곳에는 상당히 넓은 평지가 있는데, 중앙에 놀라운 솜씨로 지어진 神殿이 세워져 있다. <http://ebooks.adelaide.edu.au/c/campanella/tommaso/c18c/>

에 따라 환상(環狀)으로 돼있기 때문에 외견상 으론 마치 한 건물처럼 보인다. 건물의 중간 높이에 있는 아치(arch)는 환상으로 전체에 걸쳐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 아치 위에 거닐 수 있는 회랑(gallery)이 있다. 이 회랑은 아래에 크고 멋있는 기둥들로 지지되는데, 수도원의 회랑이나 열주랑(列柱廊)과 같이 아케이드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에는 건물하부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입구(inner or concave partition)를 제외하고는 출입구가 전혀 없다. 건물의 상부는 내부에서 거닐 수 있는 회랑으로 연결되는 대리석 계단으로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내·외벽에 창문들이 있는 건물 상부의 매우 아름다운 방들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방들은 화려하게 장식된 벽들로 분할되어 있다.²⁵⁾

주민들이 거주하는 방(宿舎)·침대·변소는 공동으로 사용되며, 6개월마다 교사들에 의해 어느 누가 어느 환상지대에 알파벳 순서로 된 몇 번째 침대에서 자는가가 결정된다. 그들은 주변의 도로·식당내부·의복·신체 등의 청결상태에 세심한 주의를 쏟고 있다. 이곳에는 국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자를 가둬두는 탑(塔)은 있지만 형무소(刑務所)는 없다.

각 환상지대엔 각기 공동취사장과 식량저장소가 있다. 또한 지하실은 공장장(工作場)·의복처리장·세탁소·곡물저장소·조리장·식당²⁶⁾ 등으로 되어있고, 목욕은 주랑 옆에 있는 돌로 된 욕조에서 하며, 그 물은 변소로 통하는 하

수구로 버린다. 각 환상지대엔 우물이 있으며, 간단한 작동으로 물을 길어 올리도록 돼있고, 그 물은 파이프를 통해 흘러나온다. 지하수도 이용하지만, 각 건물 처마에서 빗물을 모아 자갈과 모래로 여과한 다음 파이프를 저수지에 물을 모아 두게 되어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친환경적인 모습이다.

제6성벽 안쪽으로 언덕의 맨 꼭대기에 있는 상당히 넓은 평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전(神殿)은 원형(圓形)으로, 벽 대신 크고 아름다운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고 공들여 만든 아주 커다란 둥근 지붕(dome)으로 덮여져 있다. 그 둥근 지붕 가운데에 환기구가 달린 또 하나의 작은 둥근 지붕(vault)이 밖으로 돌출해 있다. 신전의 크기는 지름이 350보 이상이고, 그 바깥쪽으로 8보폭의 아치²⁷⁾가 있어 전체 크기는 366보(약 391m)나 된다.²⁸⁾

신전 바닥은 귀한 석재로 마감되어 광채가 난다. 그곳에는 7개의 행성(行星) 이름과 관련된 7개의 황금램프가 걸려있어 항상 불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신전 꼭대기에는 작고 아름다운 방들이 작은 둥근 지붕 둘레에 여러 개 있고, 그 밑으로 49명의 신관(神官)이 살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방들이 내부 기둥과 바깥 아치 위에 있는 평평한 공간 뒤로 있다.

천체의 모든 별이 그 이름과 3행의 짧은 시(詩)로 표현되고 그려진 커다란 둥근 지붕 바로 밑에 있는 제단(祭壇)은, 신전 중심부에 오

27) 거기에서부터 두둑고 튼튼하게 세워진 壁體 위로 기둥이 약 3步 길이만큼 올라가 있다. 이 벽체와 안쪽 기둥 사이에는 아름다운 바닥재로 장식된 거닐 수 있는 回廊이 있다. 수많은 大門으로 장식된 벽체의 움푹 들어간 부분에는 고정식 의자가 神殿을 지지하는 기둥 사이에 놓여있다.

28) 3인의 책 중에서 유일하게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주요 건물인 <태양의도시>의 신전은 지름이 약 391m 이므로, 건축면적만 약 12만㎡(3.6만坪)나 되는데, 이것은 비슷한 모습을 한 지름이 43.5m인 로마시대 판테온(Pantheon) 면적의 약 80배이므로 당시의 기술수준으로는 비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25) 건물의 外壁두께는 손뼉(1span=9inch=약23cm)의 8배(약1.83m), 內壁은 3배, 中壁은 1배 혹은 1.5배 이상이다.

26) <太陽의도시>에서의 食事は 모어의 <유토피아>에 나오는 식사방법과 흡사하다. 예를 들어 男女가 서로 마주앉아 식사하는 것, 젊은 남녀가 식사당변을 말하는 것, 식사 전에 간단한 이야기가 있는 것, 老人들에게 먼저 食사의 좋은 부분이 나누어지는 것 등이다.

직 한 개만 있는데 기둥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하늘의 천체(天體)를 그린 커다란 천구의(天球儀)와 지상(地上)을 묘사한 지구의(地球儀)가 있다.

(3) 베이컨의 <뉴아틀란티스>

① <뉴아틀란티스>의 배경과 사상

근대실험과학의 선구자였던 베이컨(Francis Bacon)은 <The New Atlantis, 1624>에서 과학에 눈높이를 맞추면서 유토피아를 설계했다. 그것은 모어의 <유토피아>에서와는 달리 기술문명 사회이고, 다다익선(多多益善)을 선호하는 과학적 유토피아로서,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기계(機械)가 대신하므로 일하지 않고 먹고 놀 수 있는 소비지향적인 이상사회를 묘사하고 있다.

<뉴아틀란티스>와 약 1세기 앞서 출판된 <유토피아>를 비교·대조하면, 두 저서의 차이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법관이라는 당시 최고의 지위에 올랐음에도 모어는 어디까지나 철두철미한 성직자와 같았다. 그가 설계한 이상향은 무엇보다도 미덕의 유토피아이며, 이 유덕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성직자다.

그러나 베이컨의 이상사회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자연)과학을 중시했던 베이컨은 <Novum Organum, 1620>에서 과학의 위대한 성과로 인쇄술과 화약, 나침반을 꼽았고, 그의 이상향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과학자(科學者)다. 따라서 베이컨이 이상향은 모어와 다르다. <뉴아틀란티스>는 풍요의 왕국이며 물질문명의 왕국이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는 재물과 노동의 총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감수해야 하는 부당한 손실은 또 다른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을 가져온다. 누군가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의 몫을 채우면서 두

배로 일해야 한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베이컨에게 이것은 전(前)근대 사회의 논리로 비친다. 벤살렘 섬에서는 일하지 않고 많이 먹어도 좋다. 그곳은 풍요와 잉여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어의 원시적 이상향과 대비되는 베이컨의 과학적 이상향이다. 모어와 베이컨의 차이는 자연문명과 기술문명의 차이이다.

② <뉴아틀란티스>의 벤살렘 섬과 솔로몬학술원

중국과 일본을 향해 페루에서 출항하여 온 갖 고생 끝에 도착한 벤살렘이라는 섬의 둘레는 5,600mile²⁹⁾이다. 토양이 대부분 비옥한 이 섬은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가 허용되지 않으며, 음란한 일이라곤 일어나지 않는 곳이다.

이 섬의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표현은 외빈관(外賓館)이 유일하다.³⁰⁾ 여기서 표현된 건물외관은 모어의 <유토피아>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탄자가 깔린 근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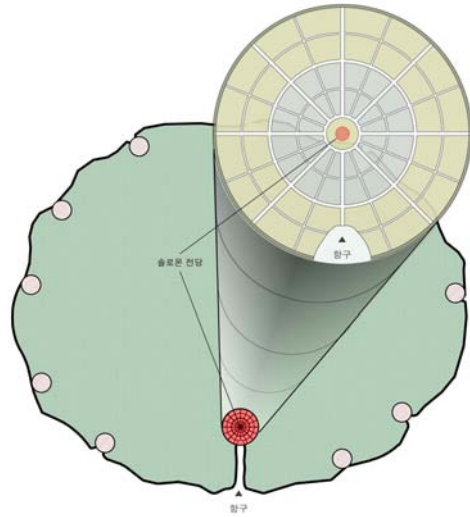
29) ①유토피아 섬의 둘레가 500mile인데 비해 벤살렘 섬의 둘레는 무려 5,600mile이나 되는데도, “항구는 이 섬의 중심지로 도시에 들어서는 관문이었다. 멀리 바다에서 언뜻 보기에 규모가 별로 크지는 않았지만 잘 정돈되었기 때문인지 아름답고 유쾌했다.”와 같이 섬이나 항구의 크기를 작게 묘사한 것이나, “5km(실체크기는 1km)가 넘는 人工洞窟과 6km(실체크기는 0.8km)가 넘는 탑이 있다.”라는 표현, 그리고 ②벤살렘 섬과 유토피아 섬 둘 다를 圓形으로 가정했을 때, 前者의 폭은 최대 1,783mile로 後者의 폭보다 약 9배 정도 크며, 면적은 약 80배 정도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벤살렘 섬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건축에서의 표현은 현실성 있는 스케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30) “외빈관은 크고 훌륭한 벽돌 건물이었다. 英國式 벽돌에 비해 더욱 길은 푸른빛이 감도는 벽돌이었다. 건물의 창도 아름다웠다. 어떤 창은 유리로 되어있었고, 어떤 창은 린넨 천으로 되어 있었다.…(중략) 우리에게 할당된 19개의 방들을 보여주었다. 특히 4개의 방이 각별히 훌륭했는데, 아마 우리 일행 중에서 신분이 높은 귀족들을 위한 방인 듯이 보였다.…(중략) 방은 아담하고 깔끔했으며 근사한 가구(家具)로 채워져 있었다.…(중략)”

Francis Bacon, 김종갑 역, 『The New Atlantis』, 에코리브르, 2002, pp.21~22

방으로 묘사된 36명의 회원이 있는 솔로몬학술원(‘솔로몬전당’ 또는 ‘6일 작업대학’)에는 온갖 종류의 진귀하고 훌륭한 발견품과 발명품의 견본과 원본이 진열된 ‘전시관’과 주요 발견자와 발명자들의 기념상이 존치된 ‘기념관’이 길쭉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

또한 “유성의 체계를 모방하고 그것의 운동을 보여주는 ‘거대한 건물’이라든가, 모든 종류의 빛과 색채, 음향, 향기, 수학에 실험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연구실’도 있다....(중략) 다양한 실험과 보관에 사용되는 최고 1km 깊이의 거대한 ‘동굴’이 있는데, 언덕이나 산을 파서 만든 ‘동굴’은 깊이가 5km가 넘는다. 그리고 800m의 높은 ‘탑’이 있으며 산위에 세워진 ‘탑’은 지면에서 6km가 넘는다.”고 책 내용 중에 솔로몬학술원의 회원이 설명하고 있다. 당시의 시공기술을 생각해볼 때, 현실감 없는 꿈같은 희망사항들의 나열들뿐이다.



-둘러 5,600mile의 삼인대 벽백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음
-탑구는 이 섬의 중심지로 도시에 활어는 관문함.
-솔로몬 전당 - 학술원
-원주시 의 그 밖의 도시들

<그림 9> 뉴아틀란티스에 대한 추정용 바탕으로 한 작성 도면



<그림 8> 뉴아틀란티스의 삽화와 상상도

그러나 다양한 동식물 재료를 이용해 많은 종류의 약을 만드는 ‘약국’, 다양한 음료수와 빵·고기를 특별하게 제조하는 ‘양조장이나 제과점’ 그리고 온갖 동식물이 있는 ‘공원’ 등의 존재라든가 또한 미래에 실현될 항공기, 잠수함, 인공강우, 합성금속 등에 대한 선견지명(先見之明)있는 예견³¹⁾에서는 과학자로서의 뛰어난 통찰력을 보이고 있다.

난 통찰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그 자체와 주거환경에 대한 묘사는 거의 없다. 베이컨은 31살에 썼던 편지에 “나는 그리 크지 않은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엄청난 학문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온갖 지식의 영역을 설립하고자 마음먹었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다. 오로지 전도유망(前途有望)한 미래의 과학적 세계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토피아 문학에서와 같이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사회생활과 인간사이의 관계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고기나 빵, 음료수의 개발, 또 먹으면 육체가 보다 단단해지고 힘이 솟아나는 식료품 / 수많은 鎔鑛爐 / 藥局 / 永久 機關의 제작 / 太陽과 天體를 모방한 발열 장치 / 地下에 인공적으로 熱을 발생하도록 만들어놓은 시설 / 眼鏡, 顯微鏡 / 音響 研究室, 香氣 研究室, 數學 研究室 / 엔진시설, 온갖 종류의 動力裝置 / 뛰어난고 새로운 大砲와 火藥, 전쟁용 火器나 軍需物資 / 하늘을 날 수 있는 기구, 물밑이나 바다 속으로 잠수할 수 있는 배나 수영 보조 도구 등이 그러한 꿈이다.

31) 培養土 /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들이 있는 公園 / 해부하고 실험해서 人間肉體의 비밀을 밝히는 도구 / 새로운 種의 動物을 얻기도 하고 다양한 물고기의 실험, 이용가치가 높은 곤충의 종을 부화 / 한번 먹고 나면

3. 르네상스시기 유토피아 문학에 묘사된 도시·건축적 특성

3-1. 유토피아의 사상과 특징

유토피아론의 공통점은 사유재산, 즉 인간의 소유욕에 모든 사회악과 불평등의 원인을 두고, 대체하는 방법으로 재산(財産) 공유제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물론 그 주장하는 근거나 내용은 각 유토피아론마다 차이가 있다.

즉, 르네상스라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모이는 기독교 공산(共産)제도를, 안드레에(J.V. Andreae)³²⁾는 기독교의 덕성과 과학연구를 중시한 산업협동사회를, 캄파넬라는 수도원(修道院)적 금욕주의를, 그리고 베이컨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을 선호하는 과학적 이상사회를 주장하였다. 이렇듯 유토피아가 추구하는 완전한 사회상은 매우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인데, 역사적 상황과 현실에 따라 항상 그 비전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³⁾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현실세계에서 멀리 단절된 봉쇄적이고 그 자체로써 자급자족하면서 질서가 유지되는, 정신·물질 양면에서의 이상적 조화를 이루는 이상국(理想國)을 꿈꾸며, 대부분 대양(大洋)의 고도(孤島)를 그 장소로 택하고 있다. 그래서 유토피아의 구상에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유토피아론은 기본적으로 현실 초월 의식이며, 비판정신과 개혁사상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데, 그것의 특성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토피아 사상은 주로 사회적 변혁기에 나타나고 있다. 기존 사회체제의 해체가 일어났던 고대 그리스·로마, 르네상스·계몽운동, 그리고 모더니즘의 시대처럼 사회적 변혁기에 나타나고 있다.³⁴⁾

둘째, 유토피아의 사상가는 현실사회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현실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하기 때문에, 유토피아 사상은 현실 초월적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한다는 특성이 있다.³⁵⁾

셋째, 유토피아는 현실 개혁적 사상이며 해방정신의 표현이다. ‘더 좋은 사회와 세계’ 및 그것의 가능성과 실현에 대한 사색과 희망 때문에 현실 초월적이지만 사회 개혁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토피아론은 현실의 구속적 조건으로부터 해방정신의 표현이다.³⁶⁾

넷째, 유토피아 사상은 전체(全體)주의적 성격을 갖는다.³⁷⁾ 또한 유토피아는 장소와 인간과의 관계만을 중시하고 인간사이의 관계를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탄생·죽음·친척관계·갈등 또는 권력·화폐·예술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32) 김영환,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사상』, 탐구당, 1989, pp.9~27, [표 1]의 ‘기독교국’ 참조

32) ①文學作品에 나타나는 牧歌的인 自然狀態나 黃金時代: 聖書의 에덴동산, Lucian의 Arcadia 등 ②Fiction에 의해 설계된 理想社會 또는 최선의 國家像: 모어의 유토피아, 캄파넬라의 太陽의都市 등 ③政治思想에 있어서 이상적 정치질서와 그 원리를 제시한 것: 플라톤의 國家論, 루소의 社會契約論 등 ④歷史哲學에서 추구하는 歷史의 최종적 완성단계: 헤겔, 마르크스 등 ⑤宗教집단이나 革命집단이 표방하는 千年王國의 추구: John Ball, Thomas Muntzer 등 ⑥知識社會學에서 다루는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그리고 文化人類學과 教育心理學에서 다루는 幸福한 生活과 人間의 性格改造論 등이 모두 유토피아의 범주에서 거론되고 있다.

34) Colin Rowe & Fed Koetter, *Collage City*, MIT Press, 1978, pp.13~15

35) 김영환,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유토피아니즘』, 탐구당, 1989, p.285

36) Karl Mannheim,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청아출판사, 1991, pp.174~175

37) 完全社會에 대한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질서를 모색하는 유토피아는 불가피하게 全體主義的 계획을 내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人間의 自由가 침해되는데, 플라톤·모어·캄파넬라·Etienne Cabet 등의 유토피아가 모두 개인의 자유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라든가 그 문제점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표 1] 르네상스시기의 이상도시 사례

시대	특성	사례
르네상스	유토피아에 영향을 받아 理想都市의 기본형을 제시한 시기로서 16세기 초에 세워진 도시의 구성 및 수평연속성이 강해졌으나, 틀에 박힌 한류의 주거환경만이 제안되었다. 中世의 迷路形에서 대로의 변화하였고, 로마시대 2개의 도로교차점 기법을 활용하였다. 새로 건설된 도시는 기술적 발전에 따른 防禦의 개선을 위한 城郭都市 형태를 띠었다. 또 職住분리와 용도구역의 제정됨시킴과, 주택은 주변부로 이동하였다. 이런 변화는 도시전반에 걸쳐 시민의식과 근린관계의 개념을 회복하게 만들었다. 그 후의 이상도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理想都市들이 많이 창안되어 바로크시기 도시개발의 기초가 되었다.	전제군주성새 스포르진다
	성새주택	L.B. Alberti는 <건축론>에서 건축과 도시를 하나의 테마로서 처리했는데 특히, 수학법칙과 합치된 도시미학과 사적 건축은 공공적인 것에 종속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성당·궁전·도성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가로를 가진 星形 평면을 제안하여 르네상스시기의 理想都市에 영향을 주었다. 그는 공공건축(兵舍·監獄·病院 등)과 지배계급시민(귀족주택과 별장), 중간층·서민층의 주택 등 도시를 여러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그는 지형에 부응하여 다양한 변화를 수용했는데, 도로계획은 토지기복에 따라 강물의 흐름처럼, 도시진입로는 위대함과 존엄한 표현을 위해 직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지위에 따라 지역이 구분되고, 더러운 작업시설은 마을 외부에, 판매시설은 귀족주택 가까이 배치하여 오늘날 混和(mixed)개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르네상스	성새주택	Filarete의 Sforzinda 계획안(1465년 경)은 마을과 田園을 결합한 최초의 디자인이다. 도시전체는 원형 내부에 2개의 상호 관입하는 사각형인 8頂點의 星形을 이루고 있다. 입구는 내측 모서리에 설치되며, 외측의 정점은 탑이 세워진다. 궁전·남녀별 학교·감옥·타운센터·공공건물·다양한 광장·運河, 그리고 職人과 노동자용 거주지 등이 多焦點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의 형상·인체비례를 근거로 한 형태이며, 동시에 중앙집중형의 방사형 가로망을 가진 기능적인 도시이다. 비트루비우스가 제시했던 8각형의 도시보다 더욱 복잡한 별 모양의 도시로서 방어에 가장 유리한 형태인 16개의 모서리로부터 도로는 중심광장에 직선으로 연결되며, 중간에 순환도로가 있어 모든 방향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이루었다. 그 순환선상에 16개의 소광장이 있어 근린주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조성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현대도시의 부도심 혹은 근린상업 권역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교통망체계 또한 현대의 기본적 교통망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팔마노바	Albrecht Durer는 圓形形態의 에워싼 도시에 城塞의 4각 윤곽을 가지게 계획했다. 트인 공지내의 중심적인 城, 모서리에 있는 敎會, 점포와 직인을 위한 工場, 곡물창고 등 필요한 것을 모두 포함한 안전한 마을을 구상했다. 다양한 理想都市를 제안한 것 중 가장 진보된 안은 正方形의 이상도시이다. 중심에 광장을 주위에 성곽을 두었으며, 모서리에 敎회를 배치하였다. 그 외에 상업, 작업장, 곡물창고 등에 보관기간, 통풍, 악취 등을 감안한 것보다는 방어적인 용이함을 우선하였다. 대부분의 원형 도시안들 속에서 듀러의 정방형 도시는 특출한 제안에 속한다.
매너리즘	기독교국	Vincenzo Scamozzi는 Sforzinda의 영향을 받아 베네치아의 要塞都市 Palmanova에서 市場에 중심적인 탑을 배치하고, 전체계획을 통해 균질적인 마을을 만들어서 르네상스시기의 理想都市를 실현하였다.
	기독교국	J.V. Andreae의 기독교 理想都市에서는 한 변이 210m인 정방형 모양, 4개의 탑과 성벽, 도시전역에 분산된 8개 탑과 16개의 작은 탑이 있다. 인구 약 400명의 시민이 종교적 신앙으로 살고 있으며, 기타 공간은 녹지개념이 아닌 가족을 기르는 용도이다. 이것은 성곽도시, 기하학적 배치의 측면에서 보면 르네상스시기의 이상도시에 가깝지만, 이후에 등장한 유토피아와 가까운 진보적 개념이다. 그는 도시를 직종에 따라 4구역으로 분할했는데, 이것은 田園都市에 제시된 것들 즉, 도시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경공업과 중공업을 분할하며, 유사업체는 한데 모으고 도시근교에 농업지역을 배치하는 것과 유사하다.

3-2. 르네상스시기의 도시·건축

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은 오래전에도 존재했지만, 단지 거주(居住)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특정 의도에 부합되는 실질적 의미의 도시 계획이 시작되었던 때는 르네상스시기이다. 다 빈치(Leonardo da Vinci)와 스카모치(Vincenzo Scamozzi), 그리고 이전에 비해 구체적이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던 필라레테(Filarete)가 계획한 스포르진더(Sforzinda) 등의 이탈리아 이상도시(Ideal city)³⁸⁾ 계획이나

토피아라는 넓은 개념 속에 한 범주로 간주된다. 다른 개념으로 볼 때 유토피아는 사회전반의 질서를 새로이 구축하면서 도시와 같은 물리적 구조도 사회의 한 구성 요소로 보는데 반해, 이상도시는 새로운 사회질서보다는 이상적인 도시구조가 사회개혁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공동체의 환경을 향상시키면서 인간·사회·자연의 조화를 위해 사회전체를 개혁하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非專門家였던 社會 思想家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의 도시·건축에 대한 이미지는, 결국 개인적인 신념으로 建築家가 제시했던 이상도시의 이미지와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그것의 개념보다는 드러난 건축적 형태구획을 중시한다면, 유토피아와 이상도시는 매우 유사한 표현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38) Utopia와 理想都市는 유사개념이거나 또는 다른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유사개념으로 보면 이상도시는 유

이규목, 『도시의 상징』, 일지사, 1992, p.131
이일형, 「이상도시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4. 12, pp.85~91

프랑스와 독일 등의 유럽 각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요새(要塞)형 도시(citadel)에서는, 사회적 요소보다도 도시·건축 배치에서의 형식주의와 규칙적인 기하학적 평면이 우세하다.

르네상스시기의 이상도시 범주에 속하는 계획들의 일반적인 형태적 특징은 다각형적 성형(星形) 둘러싸기, 도시 중심부의 광장(廣場)화 및 중심부와 주변을 연계하는 방사상(放射狀)의 도로체계 등이고, 이것의 의장(意匠)적 특징은 좌우 대칭적 구성, 비례적 구성 그리고 수평적 연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³⁹⁾

연속성·복잡성·집중성이라는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는 중세 도시와 비교해 도시를 특정한 이론적 틀에서 관조하고 계획하고자 했던 르네상스나 매너리즘시기의 건축가들은, 기후와 지형에는 관심을 나타냈지만 유토피아의 사상가들이 의도했던 질서정연한 사회체제와 조직이 실현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던 인구규모 문제에는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매너리즘시기의 건축가들은 스스로 군사적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 완성된 규칙적인 배치 계획을 작성했었다. 그러한 요새와 성곽도시는 고대 로마의 비트루비우스와 르네상스시기의 필라레테의 전통에 기본을 두고 있다. 이 시기의 도시계획에서는 형식적이고 양식적인 전개와 군사적 방어에 기초한 축성술(築城術)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바로크시기와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실리주의적 목적과 형식적 도형(圖形)의 강조가 모든 계획에 나타나고 있다. 르네상스시기의 이상도시 사례는 [표 1]과 같다.

3-3. <유토피아><태양의도시><뉴아틀란티스>의 도시·건축적 특성

베네보로(Leonardo Benevolo)가 지적하고

있듯이⁴⁰⁾ 근대 도시계획이 공상적(空想的) 사회주의 사상가인 생시몽(Saint Simon)과 푸리에(Charles Fourier), 공업자본주의적 사회개혁가인 오웬(Robert Owen)과 고텡(Jean Baptiste Godin), 초기 공산주의자인 카베(Etienne Cabet) 등의 이상사회 계획에서 시작되었고⁴¹⁾, 그러한 전통이 하워드(Ebenezer Howard)나 코르뷔지에(Le Corbusier)와 같은 근대 도시계획가들에 계승되었다고 볼 때, 르네상스시기 유토피아의 저술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유토피아><태양의도시><뉴아틀란티스>는 사실상 사회사상서여서 건축 전문서적과 비교해 볼 때 도시·건축적 내용은 빈약한 편이다. 또한 저자들 자신이 전문적인 건축 지식이 없는 까닭에 당시의 상황을 벗어난 건축적 언급을 기대하기도 어렵다.⁴²⁾ 따라서 머포드(Lewis Mumford)는 “모어가 상세한 부분까지 물리적 형태를 표현하는 상상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모어의 중세적 한계라고 했다.”⁴³⁾ 그러므로 유토피아의 도시·건축은 그 당시나 이전의 건축적 상황과의 연계나 참조를 통하여 사회와의 연관이

40) Leonardo Benevolo,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The MIT Press, 1977, pp.148~157

Leonardo Benevolo, 장성수 역, 『近代都市計劃의 起源과 유토피아』, 태림문화사, 1996

41) Robert Fishman, *Urban Utopias in the 20th Century*, The MIT Press, 1982

42) 理想都市論의 주역들은 건축가나 도시계획가들은 아니다. 특히 19세기 한국(朝鮮)과 유럽의 새로운 공동체론은 모두 사회 사상가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건축가들은 그들의 지도를 받는 협력자의 위치에 있었고 참여한 건축가들의 존재가 부각되지는 않는다. 東洋과 西洋의 理想都市論은 非專門家들인 지식인들의 건축적 발언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계획의 인습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

김봉열, 『이상도시론에 나타난 역사와 건축문화, 건축』, v37 n4, 대한건축학회, 1993, p.15

43) Lewis Mumford, 전영기 역, 『The City in History』, 명보문화사, 1990, p.17

39) 黒川紀章, 都市デザイン, 紀伊國信書, 2刷, 1996

라는 차원에서 묘사되고 있다.⁴⁴⁾

플라톤(Plato)은 도시에 대해 “신전(神殿)은 시장(市場)주위에 위치해야 하고 전체도시는 방어와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높은 곳에 둥글게 건설되어야 한다.”라는 설명을 한바 있다. 또한 “스포르진다와 팔마노바(Palma Nov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상도시는 항상 원형(圓形)을 이루고 있다.…(중략) 그리고 르네상스시기의 건축가는 신성하게 창조된 천체(天體)의 유추로서, 도시에 원형의 외형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로우(Colin Rowe)는 말했다.⁴⁵⁾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3인의 유토피아 문학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섬의 형태는 모어의 경우는 원형(圓形)에 가깝고, 캄파넬라나 베이컨의 경우도 원형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백과사전식 지식에 몰두했던 그들이 글을 쓰기 전에 이전의 사례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도시형태의 경우 흐트러짐이 없는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진 모어는 규칙적인 정방형을, 점성술(占星術)에 집착했던 캄파넬라는 우주의 형태라고 믿어졌던 원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베이컨의 경우는 전혀 언급이 없으나, 르네상스시기의 이상도시에 대한 제안이 원형에 가까운 다각형이 많았으므로 원형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모어와 캄파넬라는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여 도시를 요새화된 성곽의 모습으로 하고 있으나, 베이컨의 경우는 과학의 낙관적인 미래상에 치중하고 있어 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셋째, <유토피아>는 도시간의 위계나 기능

적 결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도시구조이다. 이는 <유토피아>내 도시들이 자치권을 갖는 자족적 폐쇄공간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고립된 도시공간은 중세의 장원(莊園) 또는 자치도시와 유사하다. 자족성과 폐쇄공간의 모색은 이후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중요한 전통이 된다.⁴⁶⁾

<태양의도시>는 생산기반인 인근 농촌과 도시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자족적 폐쇄공간의 도시구조로서 묘사되고 있다. 다만 7겹의 환상형 성벽과 그 중심에 위치한 커다란 신전이 도시구조의 위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뉴아틀란티스>는 도시구조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다. 다만 미래에 실현될 수많은 실험·연구시설과 신기한 기계장치들이 슬로몬학술원을 중심으로 도시와 생산기반으로서의 농촌을 대신하고 있다.

넷째, 모어·캄파넬라가 묘사한 도시의 모습은 사회적 통제에 필요한 질서정연한 계획을 위해 기하학적 구도에 치중하고 있다. <유토피아>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격자형 도시계획을 연상시키는 요새화된 정방형(2×2mile) 도시의 외형이나 분할과 구획을 통해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도시 내부는 기하학적 계획에 수반되는 20feet 폭의 정연한 도로배치와 30호 단위의 주거배치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성곽의 4대문은 로마시대의 카르도(cardo)와 데쿠마누스(decumanus)에서, 7겹의 성벽은 단테(Dante Alighieri)의 <신곡(神曲)>중 ‘지옥(地獄)’편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측

44) <유토피아>책의 삽화에 표현된 건축물들은 중세 고딕양식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이로부터 르네상스시대가 겪었던 과도기적 혼란과 모순을 읽을 수 있다. Helen Rosennau, 이호정 역, 『Ideal City』, 태림문화사, 1986

45) Colin Rowe, 윤재희 역, 『근대건축론집』, 세진사, 1986, pp.236~237

46) 都市와 인근 農村의 결합은 근대적 의미의 도시보다 中世의 莊園체제에 가깝다. 또한 도시 내 활동에 관한 묘사는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水路를 이용한 경제활동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배치되는 것으로, 모어가 <유토피아>를 집필하던 시기가 社會經濟的 過渡期였음을 보여준다. 김홍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캄파넬라의 태양의 도시에서 나타난 공간구조 특성과 도시계획적 함의」, 국토계획, 제43권 제6호, 2008. 11, pp.25~26

할 수 있지만, 마치 중세 수도원과 같이 엄격한 규율로 통제되는 <태양의도시>는 <유토피아>의 정방형 도시와 같은 폭 2mile의 7개 환상지대에 원형(圓形)의 성벽과 건물이 기하학적으로 엄정하게 정형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질서정연한 기하학적 구도 안에 노예는 없지만 신분계급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주거분리가 은연중에 이뤄져있다.

다섯째, <유토피아>에서 나타나는 건축적 특징은 요새화·통일성·중심성·공공시설 중심의 생활공간으로 설명될 수 있다.⁴⁷⁾ 요새화·통일성·중심성 등은 많은 이상도시 계획에서 보이는 특성이지만, '공공시설 중심의 생활공간'은 <유토피아><태양의도시>에서 비롯되어 사회·공산주의 도시·건축의 주요 특성이 된다. 그래서 <유토피아>의 '의사당', <태양의도시>의 '신전', <뉴아틀란티스>의 '솔로몬학술원'과 같은 주요 시설물들과 그에 관련된 공공 건축물들 외에는 일반시민의 개인생활과 관련된 건물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다.⁴⁸⁾

47) 김영훈,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나타나는 건축적 내용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5권4호(통권126호), 1999. 4, pp.142~146

48) <유토피아>의 '議事堂'은 모어가 정치에 회의를 품었던 까닭에 의결기구로서만 존재하고 이에 대한 건축적 설명이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태양의도시>의 '神殿'은 과학자적 자세를 가졌지만 어디까지나 성직자였던 캄파넬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건축적 설명을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뉴아틀란티스>에서는 베이컨의 지대한 관심사인 科學에 대한 실험·연구에 관련된 시설·장치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되고 있다. 그리고 <뉴아틀란티스>에서와 같이 男色者가 없거나, <유토피아><태양의 도시>에서와 같이 술집·사창가와 같은 유흥공간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금욕사회로서의 유토피아의 이념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성직자와 같은 삶을 추구했던 모어나, 도미니코수도회의 수도사였으며 생애의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불굴의 의지로 버텼던 캄파넬라, 그리고 뇌물수수혐의와 같은 금전적인 문제에 비해 여자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편이라고 전해지는 베이컨의 시각으로만 합당한 사회의 모습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생기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을 거부하는 데에서, 또한 도시와 주거의 외형을 획일화·단순화·非장식화시키는 데에서, 共產主義 사회의 모

<유토피아>에서는 개인생활보다는 공동생활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공동식사와 건전한 여가를 보내는 중요한 장소로 취급되어 있는 회관(hall)에 비해, 개인의 주택은 정원을 가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휴식의 장소로만 취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태양의도시>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개인의 주택이란 개념은 없어지고 추첨에 의해 정해지는 장소의 침대에서 취침해야만 하는 보다 억압적이고 통제된 생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로 디스토피아(dystopia)⁴⁹⁾의 모습이다. 그리고 <뉴아틀란티스>에서는 개인생활과 관련된 공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으나, 책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아 그 당시의 관습과 유사한 (대)가족 단위의 생활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결론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실제로 있는 것과 같은 극적인 형식으로 묘사한 방식은 캄파넬라·베이컨의 책에서도 발견된다. 그들의 책에서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체제는 평등을 통치이념으로 하고 있으나, 우회적으로 계층구분이 존재하고 있으며, 노예제도·화폐제도·사유재산권 등은 서로 허용하는 범위가 다르다.

다만 모어가 순수한 의도로 공산주의를 생각한 것에 비해, 캄파넬라는 남녀의 성관계마음을 예견하고 있다.

49) 과학·기술·기계에 대한 예찬과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위기·공포에서 오는 불안의식은, 진보의 관념이 지배적이던 19세기에 싹트기 시작하여 20세기에 와서 더욱 심화되었다. Dystopia(Anti-utopia)는 유토피아와 반대되는 결합으로 가득 찬 사회를 의미한다. 그것은 현대의 상황보다 더 혼란하고 무질서하며 파괴적인 사회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도시를 해체하고 파괴한다. 그래서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에 대한 허구성의 반발이나 보조적인 역할로서 나타난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Aron Betsky, 정태용 역, 『Violated Perfection』, 영문출판사, 1992, p.169
변호세, 「현대건축의 디스토피아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1993, pp.6~43

[표 2] 르네상스시기 3대 유토피아 문학에 묘사된 도시·건축

	Thomas More (1477~1535) < Utopia, 1516 >	Tommaso Campanella (1566~1639) < La città del sole, 1602 >	Francis Bacon (1561~1626) < The New Atlantis, 1624 >
저자	-영국의 사상가, 법률가, 정치가, 저술가, 人文學者 -<피코델라 미란돌라전, 1510> <리차드3세 전, 1543> -청렴결백하고 고결한 聖者같은 사람으로 政治家라기 보다는 聖職者에 가까웠던 모어는 타협을 모르는 인물 이어서, 헨리 8세의 정변으로 충돌하여 결국 死刑을 당함, 그가 설계한 유토피아는 무엇보다도 美德의 유토피아이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성직자임	-이탈리아 도미니코 수도회의 수도사, 저술가, 철학자, 점성술에 관심 -<진정한 철학, 1623> -<형이상학, 1638> -실용성과 효용성에 관심 -장기간의 收監 중에도 불굴의 의지로 학문연구에 몰두함	-영국의 철학자, 과학자, 정치가, 저술가 -<학문의 진보, 1605> <노블오미드가들, 1620> -실용성과 효용성에 관심 -베이컨은 뇌물수취의와 에식스백작 사건으로 명예에 흠집이 나긴 했지만, 르네상스시기 萬能人의 모델에 걸맞게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냄. 그에게 지식의 모델은 自然科學이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科學者임
국가 제도	-노예→일반인→가족장→주족장→시장→王(Utopus王의 존제로 추정) -가부장적 사회이고 노예제도 있음 -화폐제도 없음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재산공유제 -여행 및 이동의 자유를 제한	-일반인→지식·권력·사랑→태양(敎皇) 神政政治를 지향 -화폐는 있으나 물물교환 -노예제도 없음 -여성과 자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의 공유제	-노예→일반인→관리→시장→솔로몬학술원 회원→王(솔라모나·알테빈왕의 존제로 추정) -가부장(‘타산’이라고 부름)적 사회 -노예제도 있음 -사유재산권 인정
섬(국가)	유토피아(Utopia) 섬 -둘레 500mile, 폭 200mile(약214km) -사방 20mile폭의 54개 州는 모두가 비슷한 모습	타프로바나(Taprobana) 섬 -전체의 모습과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음	벤살렘(Bensalem) 섬 -둘레 5,600mile, 폭은 최대 약1,783mile(약1,906km)
도시	-모든 도시는 2x2mile정도로 길이가 폭보다 약간 큼 -모든 도시는 7개의 正方形으로 4분할로 구획되고, 각 구획 당 1,500세대, 총 6,000세대 거주 -도로 폭은 20ft(6m), 水路도 물류운송으로 이용	-4개의 왕국 외 ‘태양의 도시’가 존재하나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태양의 도시’ 모습은 圓形	-‘태양의 도시’ 등의 여러 도시가 존재하나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수도	아마우로툼(Amaurotum) -섬 전체의 중앙부에 있어 首都로 기능 -방무와 보루가 있는 요새화된 城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3면은 가시덤불이 있는 壕字(濠)이고, 1면은 50 yard(약45.7m)폭의 Anydrus江이 가로막고 있음. 城門에서 건넌편까지는 石造다리가 놓여있음 -성벽내의 市街와 건물은 交通과 防風에 맞게 구성됨 -건물은 웅장하며 구간을 두고 길게 가지런히 길 양쪽에 언덕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對面形으로 배치됨 -의사당: 유토피아의 전체 회의의 주재하며, 아마우로툼 한 곳에만 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시금고: 외부와의 무역자금 보관 -투수주거: 고관용, 사제용, 외국사절 및 외국인용 -기념비: 승전기념비	태양의도시 (La città del sole) -도시: 폭은 2mile(약2.1km)이상, 둘레는 약7mile -성벽과 성문: 7개의 환상지대(7개의 城壁, 외곽성벽과 제1성벽에서 제6성벽까지), 4개의 驛線道路와 성벽 각각에 4개의 城門 -궁지: 외곽성벽과 제1성벽 사이에 70pace(약74.8m), 제1성벽과 제2성벽 사이에는 67pace의 空地(平地)가 있음 -신전: 폭이 366pace(약391m)인 圓形으로 壁대신 크고 아름다운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고, 커다란 둥근 지붕(Dome)과 그 가운데 작은 지붕(Vault)이 돌출해 있음. 내부에 49명의 神官이 살고 있는 크고 작은 방이 많이 있음. 그리고 祭壇과 地球儀, 天球儀가 있음 -건물: 제1城壁 안쪽부터 제5성벽 안쪽까지 성벽에 붙어있는 環狀形態의 건물로서 내부에는 중간 높이에 설치된 Arch 위에 걸릴 수 있는 Gallery가 있고, 그 위로 아름다운 조각의 窓이 있음 -방(宿舍): 방, 침대, 변소는 공동으로 사용 -지하실: 工作場, 목물저장소, 의복처리장, 세탁소, 공동취사장, 식당 등이 있음	首都의 존재가 따로 묘사되지 않음 -솔로몬학술원: 내부의 방은 양단자가 깔린 칸사한 방으로 묘사됨 -전시관: 온갖 종류의 진귀하고 훌륭한 발견품과 발명품의 견본과 원본이 진열됨 -기념관: 주요 발견자와 발명자들의 기념상 존치함 -거대한 건물: 유성의 체계를 모방하고 그것의 운동을 보여주는 거대한 건물도 있음 -연구실: 모든 종류의 빛과 색채, 음향, 향기, 수학을 실험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연구실 -동굴: 다양한 실험과 보관에 사용되는 거대한 연구소의 동굴이 여러개 있음. 가장 깊은 동굴은 깊이가 1km가 넘고, 언덕이나 산을 파서 만든 동굴은 5km가 넘는 동굴도 있음. -탑: 800m 높이의 탑이 있는데, 산위에 세워진 것은 지붕에서 6km가 넘는 탑도 있음 -약국: 다양한 동식물 재료를 이용해 많은 종류의 약을 만들음 -양조장과 제과점: 다양한 음료수나 빵, 고기를 특별하게 제조하는 양조장이나 제과점, 부엌도 있음 -외빈관: 크고 훌륭한 벽돌 건물로서 건물의 창도 아름답다. 어떤 창은 유리로 되어있었고, 어떤 창은 리넨으로 되어있음. 방은 아담하고 깔끔했으며 근사한 가구로 채워져 있음 -주택: 대가족이 함께 사는 주거 -행사장: 넓은 방으로서 그 뒷부분은 높게 만든 뜰이 설치되는데 그 위에 원형이나 타원형의 탁집이 설치됨. 옆에 있는 다락방은 금색과 파란색 관유리로 된 창이 있어 안에서 보이는 밝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음
건축	-시장: 도시의 4개 구획 중심에 위치한 공산품 시장 -식료품시장: 시장 부근에 위치 -병원: 도시성곽 외부에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격리되어 대규모로 4개소에 위치 -교회: 도시내 13개소에 위치하고 내부는 어둡고 규모와 외관이 화려하고 장대한 -회관: 30호의 주거 중심에 1개소 위치, 집회·공동식사, 여흥·다목적 용도로 활용됨. 회관마다 교유의 이름이 부여되는데 가족장의 주택으로도 사용되고 다목적 용도의 정원이 딸림. 간호실과 육아실도 부설됨 -주택: 3층의 테라스형으로 庭園이 있음. 20ft도루에 대면하여 30호씩 일렬로 배치됨.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주거의 개념이므로 규모나 장식적인 면에서 최소한의 주거라는 개념으로 설정됨 -정원: 20ft깊이의 사방이 막힌 들 -교육기관: 구체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으나, 공동생활 중에 자발적으로 교육행위가 이뤄져야 하는 평생 자발적인 교육에 중점을 둠	성곽 외부에 농촌이나 그 밖의 생산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파수제 배농이나 시설된 등의 존재를 언급함
농촌	-농촌주택: 농기구 보관소(창고)가 딸린 공동주택, 가족장의 관리 하에 30호의 농가단위로 구성되는데, 한 농가에는 남녀 40명 정도, 노예 2명이 딸림		
기타	-작업장: 작업공간의 분리 배치 -급배수: 벽돌로 만든 수로를 통해 공동주거에 급수, 급수가 힘든 지역은 상수원이나 수조설치, 저수지	-급배수: 7개 환상지대 각각에 우물, 변소로 통하는 하수구, 雨水用 저수지 등	-공원: 온갖 동식물이 있는 公園

저 규제하는 보다 억압적인 사회통제를 시사(示唆)하고 있어 전체주의에 가깝다. 반면 베이컨의 경우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의 관습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그 당시의 사회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이다.

3인의 문학에서 묘사된 사람들의 생활상은

비슷한 모습이 적지 않다. 가족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태양의도시>를 제외하면, 모어·베이컨의 경우 남성위주의 가부장(家父長)적인 사회 모습과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상이라든가 식사관습 등에서 그러하다. 모어가 이후의 모든 유토피아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책에서 묘사된 사람들의 생활상과 건축물의 적지 않은 부분이 후대의 관련 서적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르네상스라는 같은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토피아 문학 속에서 나타나는 도시·건축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이나 언급은 적지 않게 차이가 난다. 즉, 모어>캄파넬라>베이컨 순으로 도시와 건축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고, 반대로 베이컨>캄파넬라>모어의 순으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모어>캄파넬라>베이컨 순서로 일반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설명이 많이 나오고, 그와 비례하여 관련 건축물의 설명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도시와 건축에 관한 한 모두가 비(非)전문가였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들의 평소 관심과 취향에서 비롯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는 [표 2]와 같다.

결론적으로 볼 때, ‘섬의 형태’는 모어·캄파넬라·베이컨 모두 원형(圓形)이거나 원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뉴아틀란티스>의 벤살렘 섬은 폭에서 약 9배, 면적은 약 80배 정도 <유토피아> 섬보다 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각주28 참조) ‘도시형태’에서 모어는 정방형, 캄파넬라는 원형을, 베이컨의 경우는 원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둘 다 폭이 2mile 정도이므로 <유토피아> 섬의 도시(약 2.6백만㎡)들은 <태양의도시>보다 약 1.3배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혀 언급이 없는 베이컨을 제외하고, 모어·캄파넬라의 경우 ‘도시구조’는 자족적 폐쇄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후의 사회·공산주의 도시계획의 주요 전통이 된다. ‘도시의 모습’은 모어·캄파넬라의 경우 사회적 통체에 필요한 질서정연한 계획을 위해 기하학적 구도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베이컨을 제외하고, 모어·캄파넬라의

경우 많은 이상도시 계획에서 보이는 특징과 더불어 획일화·단순화·비(非)장식화된 공공시설 중심의 생활공간이 ‘건축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이후의 사회·공산주의 도시·건축의 주요 특성이 된다. 따라서 의사당·신전·술로문학술원과 같은 주요 시설물과 공공 건축물 외에는 일반시민의 개인생활과 관련된 건물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다.

이중에서 유일하게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주요 건물인 <태양의도시>의 신전은 건축면적만 약 12만㎡(3.6만坪)인데, 이것은 비슷한 모습을 한 고대 로마시대 판테온(Pantheon) 면적의 약 80배이므로 당시의 기술수준으로는 비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각주27 참조) 이상 3인의 책에서 도시·건축에 대한 그 외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비교할 만한 유사 기능의 건물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와 관련된 치수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연구를 통해 새롭게 작성한 도면 중 타 자료에서 인용한 삽화를 제외한 모든 도면은 연구자가 처음으로 작성한 도면이다. 국내외 관련서적에 나온 도시·건축에 대한 모든 묘사와 치수 그리고 관련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스케일에 가능한 한 맞춰 CAD와 Photoshop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2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친 시행착오를 거쳐 미흡하거나 틀린 부분, 상식에서 벗어난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면을 작성하였다.

특히 <태양의도시>에 대한 <그림 7>은 3D형태의 타 도면사진 자료가 있지만, 그것은 스케일이나 치수에 대한 정확한 적용보다는 외관의 형태에 치중해 표현되었으므로, 연구자가 작성한 <그림 7>이 원문(原文)에 가장 가까운 도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토피아>에서 전해오는 기존의 삽화를 원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스케일과 치수에 맞춰 새로 작성

한 <그림 3>을 제외하면, <그림 4~5>의 경우는 최초의 도면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뉴아틀란티스>의 <그림 9>는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추정하여 작성한 도면이다.

<참고문헌>

1. Arnulf Lühinger, 『구조주의 건축과 도시계획』, 세진사, 1989
2. Bertrand Jestaz, 김택 역, 『건축의 르네상스』, (주)시공사, 1999
3. C.A. Doxiadis, 편기봉 역, 『Entopia』, 화영사, 1984
4. Colin Rowe, 윤재희 역, 『근대건축론집』, 세진사, 1986
5. Colin Rowe · Fred Koetter, *Collage City*, Cambridge, The MIT Press, 1986
6. Francis Bacon, 『The New Atlantis』, 에코리브르, 2002
7. Helen Rosennau, 이호정 역, 『Ideal City』, 태림문화사, 1986
8. Ian Tod, *Utopia*, Harmony Books, New York, 1978
9. J. Bronowski, 차하순 역, 『서양의 지적 전통』, 홍성사, 1984
10. K. Mannheim,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청아출판사, 1991
11. Kevin Lynch, 양동양 역, 『도시형태론』, 기문당, 1987
12. Leonardo Benevolo, 장성수 역, 『근대도시계획의 기원과 유토피아』, 태림문화사, 1996
13. Leonardo Benevolo, 윤재희 외 2인 역, 『The History of the City』, 세진사, 2003
14. Manfredo Tafuri, 김원갑 역, 건축과 유토피아, 기문당, 1988
15. Nathaniel Coleman, *Utopia and Architecture*, Routledge, London & New York, 2005
16. Robert Fishman, *Urban Utopias in the 20th Century*, The MIT Press, 1982
17. Robert Nogic,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문학과지성사, 1989
18. R. Wittkower, 『르네상스 건축의 원리』, 대우출판사, 1977
19. Sibyl Moholy-Nagy, 『도시건축의 역사』, 세진사, 1990
20. Thomas A. Reiner, 『이상도시론』, 태림문화사, 1994
21. Thomas More, 노재봉 역, 『Utopia』, 삼성출판사, 1982
22. Thomas More, Translated by Edward Surtz, *Utopia -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4
23. Thomas More,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Paul Turner, *Utopia*, Penguin Books, 2003
24. Tommaso Campanella, 임명방 역, 『La Città del Sole』, 삼성출판사, 1982
25. Plato, 최현 역, 『플라톤의 국가론』, 집문당, 1989
26. Plato, 박종현 역, 『티마이우스』, 서광사, 2000
27. Yolende Dilas-Rocherieux, 김휘석 역, 『미래의 기억-유토피아』, 서해문집, 2007
28. 김영한,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사상』, 탐구당, 1989
29. 김영한,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유토피아니즘』, 탐구당, 1989
30. 이인식, 『유토피아 이야기』, 깔리온, 2007
31. 임명방,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미술』, 문학과지성사, 2003
32.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1995
33. 지연순·전진희, 『르네상스 건축』, 세진사, 1993

접수(2010. 9. 16)

수정(1차: 2010. 12. 9)

게재확정(2010. 12. 20)

A Study on the Urban & Architecture that were Described in Utopian Literature of Renaissance Period

Lee, Yil-Hyung

(Associate Professor, Soonchunhyang University)

Abstract

If we take account of the 'Architectural Tradition' which aims a construction of better environment, we can see that this tradition has ended historically toward Utopia. And the concrete concepts of utopia mainly started on the Renaissance periods.

The Utopias were described well in the literatures which contained particularly three representative utopian books in Renaissance period. The one was the most famous novel <Utopia, 1516> by Sir Thomas More and the other were <La citta del sole, 1602> by Tommaso Campanella and <The New Atlantis, 1624> by Francis Bacon.

These novels expressed ideal commonwealths in which inhabitants exist under perfect conditions, ideally perfect places or state of things. The plans of utopia are complete projects of image, its goal is a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eras.

Their utopias mostly had characteristics as follows; their shape of islands were almost circle, their shape of cities were rectangularity or circle and attached importance to geometrical compositions, their structure of cities were self-sufficiency in closed spaces and their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were uniformity, simplicity and non-ornament. And thes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re urban and architectural traditions in communist countries.

Also their utopian novels had not much explanations to daily lives of people like as birth, death, relative, mental conflict or authority, money, art. So their utopian novels were not practical and had inappropriate aspects.

Keywords : Three Representative Uopian Lteratures in Renaissance Period,
Urban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in the Utopia
